

실전 돌입 타이거즈, 부상과의 전쟁도 개막

‘특별관리’ 최형우·소크라테스 연습경기서 실전 준비 김태군도 외국인 투수와 호흡 맞추려 27일 출전키로 김선빈·나성범, 캠프 실전 없이 국내 시범경기 출격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일본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KIA 타이거즈의 실전이 시작됐다. 부상과의 전쟁도 동시에 막이 올랐다.

KIA는 지난 25일 2차 스프링캠프지인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KT 위즈를 상대로 연습경기를 치렀다. 캠프 첫 연습경기가 진행되면서 그라운드 안팎으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그라운드 위 선수들은 ‘생존 싸움’에 돌입하게 됐고, 벤치에서 선수들을 지켜보는 코칭스태프는 실전에 따른 ‘부상’ 걱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KIA는 올 시즌 우승을 노릴 ‘다크호스’로 꼽힌다. 단 전제조건이 하나 있다. “부상만 없으면”.

지난 시즌 KIA를 올렸던 부상은 일단 캠프 초반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부상 관리를 위해 트레이닝 파트도 재정비를 하면서 몸관리가 우선 목표가 됐고, 부상으로 신음했던 선수들도 모두 문제없이 캠프를 소화하고 있다.

지난해 KIA에서는 나성범, 최형우, 박찬호가 경기 도중 부상을 입어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황재우 아시안게임에 다녀왔던 최원준도 종아리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했고, 김도영은 시즌이 끝난 뒤 참가한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대회에서 손가락 인대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 재활의 시간을 보냈던 이들 모두 캠프에 참가했다. 특히 박찬호와 최원준은 첫 연습경기에서 선발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공·수에서 모두 점검을 받았다. 김도영도 대수비로 나서 실전을 소화했다.

햄스트링을 다쳤던 나성범과 쇄골 분쇄 골절이라는 부상을 입었던 최형우도 자신의 루틴 대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타선의 핵심이자 베테랑인 김선빈, 김태군, 소크라테스도 ‘특별 관리 대상’.

건강하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개막을 맞는 게 캠프의 최우선 목표인 만큼 이들의 실전은 개인 몸상태에 맞춰 차분하게 준비되고 있다.

전·현직 주장인 김선빈과 나성범은 오키나와 캠프에서 진행되는 연습경기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이다. 컨디션 관리를 우선으로 해 시범경기 등을 통해 개막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성범은 “예전에는 불안해서 캠프에서 일찍 연습경기를 뛰기도 했다. 한 번 연습경기 없이 시즌을 준비했었는데 결과가 좋았다. 우려와 달리 첫 실전에서 바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즌에서 성적을 내는 것이다”며 “시즌에 맞춰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큰 부상으로 마음을 졸였던 최형우는 3월 3일 롯



KIA 최고참 최형우(왼쪽)와 주장 나성범이 후배들보다 먼저 경기장에 나와 몸을 풀고 있다.

대전·3월 4일 KT전 등 오키나와 캠프 마지막 두 경기에서 몸상태와 감을 점검할 예정이다. 소크라테스도 최형우와 맞춰 실전을 준비하고 있다.

“안방마님” 김태군은 코칭스태프의 만류에도 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김태군은 27일 열리는 일본 야쿠르트와의 연습경기에서 마스크를 쓸 생각이 다. 새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가 첫 연습경기를 소화하는 만큼 직접 경기를 뛰겠다고 자청했다.

후주 캠프에서도 외국인 투수들의 불편 피칭 파

터너로 나서 적응을 도왔던 김태군은 “감독님은 걱정하시는데 내가 불안해서 뛰겠다고 했다. 외국인 투수들과 경기하면서 실전에서 호흡을 맞춰볼 생각이”고 설명했다.

전날 KT 쿠에바스, 박병호, 황재균 등이 연습경기에 출격할 것에 비하면 KIA 베테랑들의 실전 스케줄은 느린 편이지만, 시즌 준비를 위한 열정은 신인들과 같다.

지난 23일 ‘최고참’ 최형우와 함께 나성범, 김선

빈이 가장 먼저 경기장에 등장했다. 이례적으로 엘리조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후배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경기장에 나와 몸을 풀고 타격 훈련을 했다.

24일에는 세 선수 외에도 소크라테스, 김태군, 서건창까지 베테랑들이 얼리조가 돼 일찍 움직였다.

주어진 팀 스케줄에 따라 최선을 다해 훈련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최고의 시즌을 보내기 위한 움직임이 오키나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찐 KIA맨’ 새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

투수조 훈련 끝난 뒤에도 관중석에서 동료들 응원 ‘V12’ 기원 등번호 ‘12’로...“이기는 경기 준비 중”

타이거즈 12번째 우승을 기원하는 유니폼을 맞춰 입고,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관람석에서 연습 경기를 지켜보고, 선수들을 애정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고... KIA 타이거즈 캠프에 ‘찐팬’었다. 새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가 그 주인공이다.

KIA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 풀타임 경력이 있는 크로우에게 선발 한 자리를 맡겼다.

지난 시즌 어깨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던 만큼 신중하게 페이스를 올리고 있는 그는 그라운드 밖에서는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다.

“내 친구, 내 동생”이라며 이의리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은 그는 새 동료들의 훈련, 플레이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

캠프에서의 첫 연습경기가 진행된 지난 25일에도 크로우는 ‘KIA 팬’이 돼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망했다.

이날 경기조가 아닌 투수들은 경기 시작에 앞서 숙소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비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푹 떨어진 만큼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일찍 숙소로 복귀해 개인 운동 등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크로우는 동료들의 플레이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장에 남았다. 곳은 날씨에도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관람석을 지킨 크로우는 “출치 않았다. 나는 강하다”고 웃어 보였다.

크로우의 백번호 12에도 팀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겼다.

일반적으로 12는 포수 번호다. 하지만 크로우는 우승에 대한 염원으로 이 번호를 달았다.

크로우는 “올 시즌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을 이루겠다. 그래서 12번을 달았다”며 “구단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번호들을 봤는데,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 12번을 선택했다”고 자신의 백번호를 가리

켰다.

우승을 바라고 있는 크로우, KIA의 우승을 위해 크로우의 역할이 중요하다. KIA는 지난 2년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크로우는 “화요일 경기에 맞춰서 투구수를 늘려가면서 마운드에 적응했다. 불펜 피칭을 하고, 라이브를 하면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영상을 통해 KBO리그 타자들의 다른 점들을 보고 있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포수 김태군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김태군이 다른 선수들, 성향을 잘 알고 있다. 나도 영상을 보면서 높은 몸쪽 직구를 잘 치는 타자, 바깥쪽 슬라이더 잘 치는 선수 그런 것 하나하나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심히 리그를 공부하고 있는 그는 ‘윌팀’으로 우승으로 가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크로우는 “우리 팀은 정말 좋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투수, 수비도 좋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라운드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밖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동료들이 형제, 가족



KIA 새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가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

처럼 함께 하면서 하나가 되면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즌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다. 새 시즌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크로우는 27일 일본 오키나와 우라소에 구장에서 열리는 일본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연습경기를 통해 캠프 첫 실전에 나선다.

/글·사진=wool@kwangju.co.kr

광주FC 이정효 감독 “우승할 준비 하고 있다”

K리그 2024 개막 미디어데이

K리그1 왕좌싸움을 앞두고 ‘기싸움’이 전개됐다.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하나은행 K리그 2024 개막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지난 시즌 K리그1 3위에 자리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광주FC의 이정효 감독과 ‘3년 차 주장’ 안영규가 행사에 참가해 올 시즌 포부를 밝혔다.

이정효 감독은 “시즌 준비하면서 우승할 수 있는 구단, 팀, 선수, 감독으로 매일 성장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며 “광주도 우승할 수 있는 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돌풍 속에 이룬 3위. 올 시즌 광주를 견제하기 위한 노력들과 도전은 거세질 것이다. 그만큼 광주 2024시즌에 대한 의심의 눈길도 있다.

이정효 감독은 “올 시즌 광주FC가 시험대라고 이야기하는데 K리그1 12개 구단, 감독님들도 시험대에 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주장으로 다시 한번 이정효 감독을 보필하게 된 안영규 역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승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작년에 우리가 보여줬던 그런 축구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

“3월 2일 개막전 ‘상식 밖 생각’으로 서울 잡을 것”

하는 팀이 돼 모든 팀이 우리를 우승후보라고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팬분께도 작년처럼 즐거운 축구, 감동을 줄 수 있는 축구를 선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 시즌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광주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승격팀’이었다. 하지만 당당히 파이널라운드 A에 진출해 3위까지 이루면서 지난해와는 다른 자리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올 시즌 경쟁 구도 질문에 광주를 감정으로 분류한 사령탑들도 있었다.

제주유나이티드 사령탑으로 K리그로 복귀한 김학범 전 광주 감독은 4강 후보에 광주의 이름을 넣었다.

그는 “광주, 전북, 울산, 서울이 우승을 다투는 4강에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8개 팀은 중으로 분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민성 대전하나시티즌 감독도 “전북, 울산, 광주 3팀 정도가 우승을 다툴 것 같고, 다른 팀은 막상막하가 될 것 같다”고 광주를 주목했다.

“대전, 서울이 돌풍의 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단 페트레스쿠 전북현대 감독은 “울산, 전북, 광주, 포항, 대전, 서울이 상위 스플릿에 들 것 같다”고 및

불였다. 이정효 감독은 “올 시즌 3강, 중상 5개 팀, 중 4개 팀으로 전개될 것이다. 3강 팀은 상상에 맡기겠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가장 눈길을 끈 팀은 역시 서울이었다. 김기동 감독이 새로운 지휘봉을 들었고, 린가드라는 특급 선수가 서울 유니폼을 입으면서 5명의 감독이 서울의 돌풍과 질주를 예상했다.

광주는 가장 주목받는 팀 서울과 오는 3월 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2024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개막전을 앞두고 양 팀 사령탑의 기싸움도 펼쳐졌다. 김기동 감독이 “내가 포항에 있을 때 이정효 감독님이 다른 경기보다 포항전을 신경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다. 첫 단추 잘 꿰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을 것인데, 그 경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맞서 이정효 감독은 “그날 상식 밖의 행동은 하지 않겠다. 상식 밖의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 많은 팬이 오신다고 하는데 누가 오든지, 누가 뛰든지 상관없이 상식 밖의 생각으로 만들어보겠다”고 히를 찌르는 전술로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동계체전 스키 크로스컨트리 ‘깜짝 동메달’ 기뻐”

전남대 체육교육학과 선수단

지난 25일 막을 내린 제105회 전국동계체전에서 스키 크로스컨트리 대학부 선수들(사진)이 광주에 소중한 메달을 안겼다.

광주 대표로 출전한 전남대 체육교육학과 스키부 김승환·강태관(이상 2년), 장기현·이희권(이상 3년)은 대회 3일 차인 지난 2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에서 열린 남자대학부 30km계주 결승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1번 주자 강태관을 시작으로 장기현, 이희권, 김승환이 나란히 경기에 나섰다.

한 선수당 루트를 3바퀴씩 돌게 되는데, 선수단은 총 30km의 코스를 2시간40분42초7의 기록으로 완주하며 1위 충남(1시간25분55초8)과 2위 강원(1시간26분32초9)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이들이 소속된 전남대 체육교육학과 스키부는 주장 고희명(3년)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이번 동계체전에 출전했다. 선수단은 지난 6일부터 강원도 평창에 머무르며 체전을 위한 합숙 훈련을 했다.

이번 동메달 획득은 선수단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 더욱 기뻐했다.

김승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평창에 있었던 18일 동안 다같이 고생한 것을 보상받는 것 같



아서 큰 보람을 느꼈다. 대학에 올라와서 처음 스키를 타보게 됐다. 체전 출전에 처음이라 못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임상까지 하게 되어 다행이고 너무 기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기현은 “합숙기간 동료들과 연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생각했다. 크로스컨트리는 끈기와 정신력, 인내력까지 필요한 종목인 것 같다. 새로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기술보다는 체력 싸움이다’고 조언해준다”고 전했다.

또 “함께한 선수들과 좋은 추억 쌓은 것 같아서 기쁘다. 후배들도 앞으로 추억 많이 만들며 서로 의지하며 스키를 댄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창글·사진=김진미 기자 jinggii@